

元老  
와의  
대담

# 평생을 生態學연구 논문도 80여편 발표

한국 식물생태학계의 태두

## 金遵敏 박사

대담/朴澤奎 <건국대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 서울대서만 33년 근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매우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1개월에 한번씩 학술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지요(1972년부터 종신회원) 지난 7월14일에 성곡(省谷)학술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받게된 것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살된 손녀 민선(政宣)이를 얼마동안 집에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이 귀염둥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사와 같은 아가는 사랑을 배풀수록 그만큼 따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요새는 따로 살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민선이를 만나 함께 놀아주는 것에서 생의 또 다른 희열을 맛보고 있어요.

선생님 손녀와의 즐거움, 사랑이 얼굴 모습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46년에 서울대 사범대 생물학과를 창설하신 한국식물생태학계의 원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해방될 당시 개성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자 서울에 올라



◇한포시를 생태학계의 태두 金遵敏박사가 박태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와서 도상록교수를 만났습니다.이분은 경성대학 이학부장(물리학 전공)으로 개성 송도고보의 은사였어요. 송도고보 동기동창으로 동경제대 약학과 출신의 조제한군도 도상록선생이 불러서 이학부를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듬해 서울대로 되면서 이태규박사가 이학부장을 맡았지요. 그후 도상록교수, 조제한선생은 월북했습니다. 강영선교수와 함께 이태규박사를 찾아가서 생물학과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고 서울대에 생물학과가 생겼는데 12회 졸업생은 내가 가르쳤어요. 그후 장리욱박사가 서울

대 총장이 되면서 사범대에 생물학과를 만들라고 해서 생물학과가 신설되었는데 문리대 생물학과보다 1년 늦었어요. 부산에 피난가서도 전시연합대학 사범대 생물학과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의 근무는 1946년 부터 1979년 정년퇴직까지 꼭 33년이 되는 셈이지요.

### 이제 제자도 停年퇴임

선생님께서 생물학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이분들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근 몇년사이에 정년을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생물학계의 발전에 공헌했고 현재도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원기왕성한 학자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중에서 박봉규(이대), 이영로(이대), 주일영(중앙대), 오계철(서강대) 등 여러 교수들도 벌써 정년퇴임하였지요. 대학과 중고교 등 교육일선에서 생물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 그리고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졸업생들을 지켜보는 것을 생의 큰 기쁨으로 삼고 있어요.  
 선생님은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셔서 개화된 집안에서 성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일을 회상하신다면...  
 경기도 개풍군 남면 울옹리(栗鷹里) 597번지. 비교적 개화된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엄친(金周烈)께서는 시골농민이

었으나 한문에 능하셨고 서울에 와서 과거를 보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나는 6남매중 막내로 당시 먼서기를 지내신 큰형님(金遵德)이 나보다 20년 연장이었는데 이분의 덕을 크게 입었어요. 면에는 보통학교가 없어서 기독교교회에서 예배후나 평일에 가르치던 강습소에 다녔지요. 두분의 선생님께서 5학년까지 가르쳤어요. 그후 대성면의 6년제 풍덕공립보통학교 6학년에 편입했는데 30명의 편입응시생중에 유일하게 나만 합격하였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명문 개성 송도고보에 진학하시게 됩니까? 그리고 평양 송실전문대에는 어떤 계기로 입학하셨습니까  
**송실전문대에서 苦學**  
 나는 지금도 개성에 있던 송도고보가

시설면에서나 교육면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학교라고 믿고 있어요. 이 학교는 윤치오선생이 설립하신 학교인데 미국 테네시주 밴덜빌트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이분이 받은 장학금을 기금으로해서 이 대학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설립됐지요.

화강암으로 지은 3층 본관, 석조건물인 이화학동에는 계단교실이 있었고 실험실이 있었으며 박물관(생물)도 전용건물 3층의 석조였어요. 실내체육관, 강당, 유도관 등 그 시설이 현대적이었어요.

나는 1929년에 입학하여 5년제 송도고보를 1934년에 졸업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집은 가난한 소작농이었고 송도고보시절은 전세계적으로 불경기였어요. 송도고보를 졸업한 다음 진학할 수 없어서 시골집에 내려와 있는데 어느날 친구가 찾아와서 돈 안내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트이더군요. 학비없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니, 실제로 송실전문학교에 입학하면 노동하면서 학비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사에 4층 건물의 기숙사에는 전교생이 입사하여 세끼 더운 밥, 토요일마다 고기국을 먹여주는데 기숙사비가 7원이었어요. 노동하면 7원50전을 임금으로 주는데 기숙사비로 7원을 지불하면 50전이 남거든요. 당시 영화보는 데 5전에서 10전정도 하였어요. 전원 기숙사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대학, 송실전문 재학시절의 회상은 매우 감개무량하지요. 나는 농과에 입학하여 3년제 송실전문을 졸업하였는데 얼마전에 간행된 송실대 1백년사에 영광스럽게도 총장이 나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였더군요. 우리가 졸업한 2년 뒤에 송실전문대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지요.

그 후 일본 동북제대에 진학하여 생물학을 전공하시게 되는데 그 배경을 이야기해주시지요.

### 일본東北帝大로 진학

숭실전문에는 미국인교수들이 있어서 영어로 강의하였고 교수마다 조교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을 치르는 등 짜임새 있는 강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숭실전문에서는 농학을 전공했지만 동북제대에 입학해서는 생물학을 공부하게 됐지요. 그 이유는 농업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작물학 등이고 수학, 물리, 화학, 식물, 동물 등의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했던터라 기초학문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생물학중에서도 식물생태학을 전공했지요. 당시 동북제대 생물학과에 한국인은 없었고 10년 후배로 김호직씨(농림부차관 역임)가 있었어요.

동북제대를 졸업하신 다음 8.15해방될 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1942년부터 2년간 함북 경성중학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제자로는 조요한 박사(숭실대총장) 마경석씨(뉴테크인터내셔널 <주> 회장) 등이 있지요. 그후 개성중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신 일이 없군요. 1946년부터 줄곧 서울대에 계셨는데 1960년에 미국·유학길에 오르셨지요?

처음에는 피버디 프로젝트로 도미했는데 식물생태학으로 유명한 듀크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피버디에 1개월정도 머물다가 듀크대로 옮겼지요. 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후 1966년에 동북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학위논문 제목은 「삼림형(森林型)에 따른 토양의 비옥도의 유지에 관한 연구」였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선각자들이 전공영역의 불모지에서 학회를 창립하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초창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생각하면 후학들로서 존경뿐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서와 학회창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해외학술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발표된 논문은 80여편에 이르고 있으며 「식물생태학」(1976년) 「한국식물의 생태」(전파과학사)를 비롯하여 여러 권의 번역서가 있지요.

고(故) 이민재 교수(전 서울대교수·전 강원대총장)와 함께 한국식물학회를 창립하여 1968년에 학회장을 맡았지요. 그리고 1957년에는 내가 한국생태학회를 설립하여 2년간 초대회장을 지냈어요. 한국자연보존협회 초대회장은 이덕봉선생이 역임하였고 1982년부터 2년간 내가 회장을 맡았어요. 생물과학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저술하였지요. 1956년에 홍지사에서 중학교 「과학」, 그리고 영지사에서 고등학교 「생물」교과서를 출간한 것을 비롯하여 80년대 초까지 집인정 과학, 생물교과서를 계속 집필하였지요.

선생님은 교수로 봉직하시면서 오로지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 재직시절 보직을 맡지 않고 평균수모만 계셨습니다. 학술활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려주시지요.

### 국제과학자대회서 강연

서울대 재직시절 학생들이 선생님은 학과의 주임교수도 맡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특별히 회상되는 것으로는 1989년 남미 칠레에서의 태평양과학자대회입니다. 학술원회장을 비롯해서 일행 5명이 참가했는데 대표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지요. 원고없이 강연을 하고 강연이 끝난 뒤 질문자 3명의 질문을 역시 유창한 영어로 답변해서 장내를 압도하였다고나 할까. 어쨌든 강연을 마치고나니 당시 학술원장 서돈 각박사가 너무 기뻐서 나를 끌어안은 일도 있었지요. 그때는 내가 주로 연구 하였던 곰팡이의 일종인 지의류(地衣類)에 관한 것을 강연하였는데 도시와 공업지대의 아황산가스 분포와 지의류의 관계를 발표했어요. 지의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 아황산농도를 알 수 있지요. 대기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바탕이 돼서 대기의 순도지수(Index of atmosphere purity)를 작성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선비의 고고한 면모를 찾을 수 있고 평생 단아한 기품으로 생활하신 꾸밈없는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학교육에 관해서 평소의 지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에서의 과학교육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와 학생이 세미나 중심의 강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은 전공분야의 잡지, 논문을 완벽하게 비치해서 교수가 제시하는 과제를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여서 전공 한 과목만 담당토록하고 학생들에게 과목당 전공외국어적 56권을 필수적으로 읽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하고 70~80%를 낙제시켜서 탈락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과학은 수박겉핥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의 진수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지요. 대학의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선생님,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